

박물관의 다종화와 전시방법의 다양화

배 영 동*

목 차

- | | |
|---------------------------|------------------------|
| I. 머리말 | V. 전시전달의 주요내용 다양화 |
| II. 박물관: 문화유산·자연유산의 관리기능체 | VI. 전시전달 방식의 다양화 |
| III. 한국박물관의 편향성과 그 극복 | VII. 전시보조자료의 다양성과 그 적용 |
| IV. 전시주제 설정방식의 차별화 | VIII. 맺음말 |

I. 머리말

박물관은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물질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의 역사와 특성을 간직한 물질적인 자료를 수집·전시·연구·보존·교육하는 공공의 문화시설이다. 이러한 물질적인 자료를 박물관자료(museum materials)라고 하거나, 이는 크게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대별된다. 문화유산은 사람들의 삶이 낳은 것이므로 생활양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자연유산은 인간생활과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연의 역사와 실상을 일러주는 자료이다.

한국의 박물관은 주로 고고자료나 미술사자료를 중심으로 다루는 문화시설로서 인지되는 까닭에 전시영역에 따른 박물관의 종류가 딱 제한되어 있는 셈이다. 다행히 1991년에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여러 종류의 전문박물관이 설립되고 있기는 하나, 대규모의 국립박물관, 대학박물관, 공립박물관 쪽에서도 박물관의 종류와 전시방법을 좀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적으로 박물관 발달사를 보면, 그 역할과 기능의 중점이 ①자료수집·보존→②전시·연구→③사회교육으로 점차 이행해왔다. 즉, 박물관은 왕실 또는 귀족층에서 정치적·종교적 동기에서 보배로운 물품을 특정한 공간에 보관하여 활용하는 데서 출발되어¹⁾ 점진적으로

* 안동대학교 국학부 민속학전공 교수

1) 서구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박물관의 연원은 기원전 300년에 이집트의 Ptolemaeos Philadelpos 왕에 의하여 완성된 Mouseion에서 찾아진다. 이것은 알렉산드리아 궁전의 일부에 설립한 것으로서, 그리스의 학자·철학자를 초빙하여 學藝研究를 추진하고 강당을 설치하여 학생양성까지 하였다.

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전시와 연구를 하게 되고,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박물관 활동이 강화되어 왔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은 제한된 상류계층이나 전문가를 위한 박물관에서 다수 대중을 위한 박물관으로 페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박물관이 현대인들의 다양한 활동방식에 부응하고, 광범한 영역의 문화향수와 지적탐구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그 변화는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서 박물관의 多種化와 전시의 多樣化가 요망되며, 이를 위해서는 박물관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일정하게 탈피하는 인식의 전환도 전제되어야 한다.

이 글도 한국 박물관의 일반적 경향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하나의 제언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박물관의 설립과 전시는 그 사회가 처한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면서 나타난 사회적·학문적·경제적·기술적 현상이다. 환언하면 그 나라에 어떤 종류의 박물관이 어떠한 배경에서 설립되고 어떠한 방법으로 전시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는 당해 국가의 사회문화 현상이다.²⁾ 따라서 한국 사회문화의 일반적 배경 속에서 한국 박물관의 편향성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대안적 노선에 따라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특히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취급대상으로 하여 성립되는 박물관이 그 종류상으로 어떠한 다양성이 있으며, 그에 따라서 전시방법 또한 얼마나 다양하게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나 하는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즉, 전시주제 설정법, 전시전달의 주요 내용, 전시전달 방식, 전시 보조자료 등에 관하여 어떤 차별성과 다양성이 있는지에 관해서 살펴보고 이것이 각이한 종류의 박물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전시효과(exhibition effectiveness)는 무엇인지 성찰하고자 한다. 다만, 전시디자인과 전시전달 장치에 관해서는 논외로 하고자 한다.

II. 박물관: 문화유산·자연유산의 관리기능체

박물관에 대한 정의는 각국 박물관의 협력증진, 이익도모, 역할증대를 통하여 인류문화의 발전을 꾀하고자 1946년에 결성된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헌장에 잘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박물관은 인간과 인간환경의 물질적인 증거를 수집·보존·연구·전달·전시하여 사회와 사회의 발전에 봉사할 수 있도록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연구·교육·위락에 이바지하는 비영리적이고 항구적인 시설이다.³⁾ 이 정의에서는 박물관에서 다루는 대상자료, 박

자료도 당시 선진기술로 만든 機器나 예술작품, 도서 등을 수집 전시하였다. 이것은 대학의 시초이기도 하며, 박물관이나 도서관과 같은 대중적 사회교육의 시원이 되었다. 그러나 박물관자료를 조직적·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하지는 않았다. Mouseion이라는 명칭은 Muse神에게 봉사하는 신앙을 돈독히 하기 위하여 'Muse神의 殿堂'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加藤有次, 1996. 『博物館學總論』(雄山閣) 46쪽 참조).

2) 이와 관련하여 전경수는 박물관을 하나의 문화과정(cultural process)으로 파악한다(전경수, 1998. 『한국박물관의 식민주의적 경험과 민족주의적 실천 및 세계주의적 전망』, 『한국인류학의 성과와 전망』(집문당)).

3) 문화체육부, 1994. 『국제박물관협의회 규정집 -정관·전문직원 윤리요강-』, 87쪽.

박물관의 활동과 기능, 박물관의 목적, 박물관운영의 성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이 글과 관련하여 주목을 끄는 것은 대상자료 즉, 박물관자료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박물관자료의 범위는 ‘인간과 인간환경의 물질적인 증거’라고 했는데, 이는 광범하고 모호하여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 결과 박물관에서 수집하여 전시할 수 있는 자료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국가와 학자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하는 실례들이 많이 발견된다. 그러므로 국제박물관협의회에서도 구체성을 띤 세부 조항을 만들어서 다음과 같은 기관(시설)을 정의에 합당한 박물관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⁴⁾

- ① 인간과 인간환경의 물질적인 증거를 수집·보존·전달하는 자연적·고고학적·민족학적 기념물과 유적지, 그리고 박물관의 성격을 가진 역사적인 기념물과 유적지
- ② 식물원·동물원·수족관·동물 사육장과 같이 살아있는 식물과 동물의 표본 수집품을 보유하고 전시하는 기관
- ③ 과학센터와 천문관
- ④ 도서관과 고문서 보관소가 항구적으로 유지하는 보존기관과 전시관
- ⑤ 자연보존 지역
- ⑥ 이 현장에서 정한 정의대로의 박물관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는 국제적 또는 국가적 또는 지역적·향토적 박물관 조직 또는 부서나 공공기관
- ⑦ 박물관과 박물관학에 관계된 조사·교육·훈련·문서화 그리고 기타 활동을 하는 비영리적인 기관이나 조직체
- ⑧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다음에 집행위원회가 박물관의 성격을 일부 또는 전부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다른 기관들이나 박물관학적인 연구나 교육·훈련을 통해서 박물관과 박물관 전문직원을 후원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타 기관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거하여 볼 때는 이러한 국제박물관협의회의 세부 규정을 전적으로 수용하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따르고 있다. 더욱이 일반인의 경우 위의 ①에 해당되는 시설이나 기관에 거의 국한하여 박물관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게다가 연대가 소급되는 자료와 인간생활의 물질적인 증거가 되는 자료를 취급하는 문화시설에 한정하여 박물관으로 여기고 있다. 환언해서 오랜 역사성을 담보하지 못한 물질적 자료와 인간환경의 물질적 증거인 자연사자료는 박물관의 취급대상에서 상당히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물관의 종류는 실로 다양하다. 첫째 다루는 대상의 영역에 따라서, 둘째 취급하는 자료

4) 문화체육부, 『앞책』 87쪽. 그러나 여기서는 ⑥, ⑦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1995년 7월 7일에 노르웨이에서 개최된 제18차 ICOM 총회에서 개정된 ICOM 현장에 포함되어 있다.(internet 자료 활용)

의 범위·전시체계·시설규모·연구원의 전공 등에 따라서⁵⁾, 셋째 설립주체에 따라서⁶⁾, 넷째 전시의 공간성에 따라서⁷⁾ 각기 다르게 나눌 수 있다. 이 글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박물관의 전시영역별 종류인데, 그것은 전시자료의 영역과 성격이 박물관 전시의 방법을 일정하게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 때문이다.

박물관에서 어떤 대상을 다루고 전시하느냐에 따라서, 문화유산을 다루는 박물관과 자연유산을 다루는 박물관으로 나누어진다. 문화유산을 다루는 박물관은 인문사회계 박물관·과학기술계 박물관·예술계 박물관으로 구분되며, 자연유산을 다루는 박물관은 자연계 박물관이 된다. 인문사회계 박물관에는 고고박물관, 역사박물관, 인류학(민족학)박물관, 민속박물관 등이 포함되고, 과학기술계 박물관에는 과학박물관, 산업기술박물관, 의약학박물관 등이 포함되며, 예술계 박물관으로는 미술사박물관, 미술박물관, 음악박물관 등을 들 수 있다. 자연계 박물관에는 자연사박물관(museum of natural history), 생태박물관(ecomuseum),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이 포함된다.

그럼 박물관의 필요성은 대체 무엇인가? 먼저 문화현상과 문화유산을 다루는 박물관은 그것이 어떤 형태와 규모를 취하고 있건, 또 어떤 목적을 띠고 있건 간에 인간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아무리 인간이 엄정한 객관을 유지하여 문자기록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분히 식자층이 중심이 되어 식자층의 관점에서 씌어진 것이며, 그보다 더 기본적으로는 씌어지지 않은 역사가 월등히 많고, 문자가 없던 시대가 더 장구하였기 때문에 박물관은 문자기록이 없던 시대의 인간의 삶을 비교적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최우선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뿐만 아니라 옛 사람들의 삶의 자취를 오늘날의 우리만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후손들에게도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문화유산을 집적하여 보존·관리·연구하는 박물관은 필요하다.

다음으로 자연현상과 자연유산을 다루는 박물관은 그것이 어떤 형태로 전시되고 어떤 형태로 운영되던 간에,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천체·우주·동식물 등의 자연(생물학적 존재로

5) 박물관에서 취급하는 자료의 범위, 전시체계, 시설규모, 연구원의 전공 등에 따라서 종합박물관(general museum)과 전문박물관(special museum, specialized museum)으로 구분된다. 종합박물관이란 복합분야(complex fields)를 전시하는 박물관을 가리키며, 전문박물관은 단일분야 또는 특정 主題群(subjects)을 전시하는 박물관과 특정 物目群(items)을 전시하는 박물관을 함께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한편 특정 분야의 자료를 전시하되 일반 공중에게 개방되지 않고 특정 분야의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박물관을 특수박물관이라고 하여 전문박물관과 구분하기도 한다.

6) 박물관 설립주체에 따라서는 국립박물관, 공립박물관, 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으로 나뉘어진다. 이 가운데서 국립박물관과 공립박물관, 사립박물관의 구분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까닭에 더욱 확연해졌다. 그러나 대학박물관을 포함한 학교박물관과 과학기술처 산하의 박물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법에서 말하는 구분에서는 제외되어 있지만, 우리 나라 박물관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대학박물관은 별도의 분류항으로 설정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판단된다.

7) 박물관 전시의 공간성에 따라서 육내전시형 박물관(indoor museum), 육외전시형 박물관(outdoor museum), 현지보존형 박물관(site museum, field museum) 혹은 야외박물관(open air museum)으로 나누어진다. 특히 야외박물관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나라에서 박물관으로서 인정하는 데 인색한 편이다.

서 인간도 자연의 일부를 이룸)의 역사와 특성을 이해하는 데 절대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나아가 자연 속에서 삶을 영위해온 인류의 현재와 미래의 이상적인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각종 자연유산을 집적하여 보존·전시·연구하는 박물관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자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할 때 박물관은 단순히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전력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와 교육으로까지 그 기능을 확장하게 된다. 따라서 박물관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체로서 그 특징이 파악된다. 다만, 문화유산을 다루는 박물관과 자연유산을 다루는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에 다소간의 차이를 보일 뿐이다.

Ⅲ. 한국 박물관의 편향성과 그 극복

1. 한국박물관의 현황과 편향성

현재 우리 나라의 대규모 유명 박물관을 살펴보면 전시자료의 성격과 해석방법상으로도 고고박물관과 미술사박물관(혹은 미술관), 그리고 민속박물관이 합세하여 그 주류를 형성한다고 본다. 그것도 단일 분야를 다룬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고고자료와 미술사자료, 고고자료와 역사자료, 향토사자료와 민속자료를 함께 다루고 있어서, 전문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전시대상 영역의 복합적 구성을 중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박물관자료는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수집·보존·연구·전시의 대상이자 교육의 매체로서 박물관 성립의 제1차적 요소이자 핵심적 요소이다. 박물관자료는 그것의 시대성과 내용에 따라서 고고자료, 미술사자료, 역사자료, 민속자료, 자연사자료, 과학기술자료 등으로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 나라에서 중요한 박물관, 대규모 박물관은 종합박물관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고고미술사박물관이다. 고고학, 미술사 전공자들이 불모지대에 박물관을 이끌어왔음을 알 수 있다. 거기다가 이른바 민속학 전공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민속박물관(자료관, 향토관)이 상당수 설립되어 박물관의 수적 증가에 한몫을 한 셈이다. 이른바 민속자료를 수집·전시한 박물관은 자료수집의 용이성, 지난날에 대한 낭만적 향수, 인멸되어 가는 지난 시절의 생활자료 보존이라는 배경 때문에 설립된 면이 강하다.⁸⁾

고고미술사박물관은 그 원류로 따지면 왕실의 보물창고나 희귀한 동식물을 기르던 것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한다.⁹⁾ 근대적 박물관은 우리 손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일본인에 의한 제

8) 배영동, 1997. 「박물관과 민속학의 접점과 상호발전」 『박물관학연구』 제2집(대전보건전문대학 박물관 학연구소) 55쪽.

9) 이난영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검토하여 신라와 백제에서 궁궐에 진귀한 동식물을 길렀던 것과 貴妃庫와 天尊庫 같은 보물창고를 한국에서 박물관의 맹아로 파악하고 있다(이난영, 1993. 『박물관학

국주의의 식민지 주권침탈의 연장선에서 자행된 문화유산 약탈·고적조사와 함께 박물관이 설립된 점을 간과할 수 없다.¹⁰⁾ 해방 후에는 민족문화와 역사의 정통성 계승이라는 논리와 함께 낭만적 민족이념과 결부되었으며, 자연스럽게 국민 다수보다는 소수의 엘리트가 이른바 ‘찬란한 문화유산’을 감상하는 기관으로 자리잡았다. 그 결과 초기 한국의 박물관은 다분히 엘리티즘적 박물관, 진귀품을 수집·보관하는 박물관, 연구중심형 박물관¹¹⁾이라는 정향으로 말미암아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벽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박물관은 무한한 감동과 신비감을 주는 진귀하고 오래된 역사적 보물을 전시하는 시설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영향력 있는 대규모의 박물관은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박물관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이와 다른 성격과 형태의 박물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급한 박물관으로 평가절하 하는 사례마저 발견된다. 박물관에 대한 이러한 인식과 고정관념이야말로 청산되어야 할 제국주의적 博物館觀이며 식민주의적 박물관관이라고¹²⁾ 평가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2. 박물관의 다양성 제고를 위하여

이제 우리는 전시내용·기능·전시방법의 측면에서 여러 종류의 박물관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첫째, 전시내용의 구성(박물관자료의 종별 구성)으로 보아 자연유산을 전시하는 박물관을 계속적으로 설립해야 한다. 고고박물관, 미술사박물관, 민속박물관이 우리 나라 박물관(향토관 포함)의 주종을 이루지만 박물관자료는 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다양하며, 자연유산을 전시 관리하는 박물관이 국내에는 드물고 문화유산을 전시관리하는 박물관에 비해서도 더 열악하기 때문이다.¹³⁾ 문화유산을 취급하는 박물관 분야에서도 인류학박물관, 과학박물관,

입문』(삼화출판사) 77-78쪽).

10)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전경수의 「앞글」, 664-675쪽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조선총독부박물관이 조선 황실의 궁전인 경복궁에 세워진 점, 일본 땅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왕릉의 발굴을 실시한 점, 조선반도 각지에서 원래의 문화적 맥락을 분리하여 문화유산을 수집한 점, 우리의 역사를 은폐·날조하면서까지 식민지배를 위하여 문화유산을 일본으로 유폐한 점 등은 모두 박물관이 제국주의적 문화지배를 위한 구도에서 설립되고 운영되었음을 보여준다.

11) 新井重三은 박물관을 기능에 따라서, 全機能型 박물관, 保存機能重視型 박물관, 教育機能重視型 박물관, 研究機能重視型, 레크레이션重視型 박물관으로 대별한 바 있다(新井重三 외, 1979. 『博物館學講座 1 - 博物館學總論-』(雄山閣出版) 124-128쪽).

12) 배영동, 「앞글」, 56쪽 참조.

13) 우리나라에는 자연사분야의 박물관이 사회적으로나 박물관 관련학계에서나 그 존재의의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 국립자연사박물관은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립중앙과학관과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 자연사전시실이 부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그 외에 청주어린이공원이거나 부산금강공원에 마련된 것처럼 화석, 어패류, 보석류를 전시하는 전시관이 있다. 좀더 본격적인 자연사박물관은 대학에 부설되어 있다. “강원대학교, 경희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남대학교에서 자연사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지

산업기술박물관, 의약학박물관 등도 곧 설립되어야 하거나 그 수가 증가되어야 한다.

둘째, 여러 분야의 전문박물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어린이박물관, 종교박물관, 놀이박물관, 무용박물관, 교통박물관, 복식박물관, 음식박물관, 교육박물관과 같은 박물관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좁은 범위의 특정한 物目群(items)을 수집 전시하는 무수한 박물관이 성립될 수 있다. 이를테면 화폐박물관·우표박물관·부채박물관·장신구박물관·자수박물관 등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전문박물관은 관람자에게 특정 영역에 관한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집중적인 흥미와 전달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셋째, 최근세의 자료를 수집·전시하는 박물관도 설립해야 한다. 오래된 자료는 당연히 보존가치가 있는 것이고, 오늘날의 자료는 보존가치가 없다는 생각은 역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역사성이 얇은 최근의 자료는 박물관에서 수집·보존·전시의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이야말로 새로운 문화단절과 역사 없애기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적은 노력과 재원으로 최근세·현대의 자료를 오랜 기간 동안 수집하여 박물관을 설립하면 당장 귀중하지는 않더라도 다양한 전시내용을 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¹⁴⁾ 박물관은 자손 만대로 물려주어야 하는 현대문화의 집적체이므로, 단순히 오래된 과거의 자취만을 수집·전시·연구·교육하는 시설이 아니라 최근세·현대자료를 보존하는 기능도 충분히 담당할 수 있으며, 또 담당해야 마땅하다. 이러한 자료들은 민속자료일 뿐만 아니라, 훗날 역사자료, 고고자료, 미술사자료, 과학사자료 등으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¹⁵⁾

넷째, 학구성보다는 대중성을 지향하는 박물관을 설립해야 한다. 애초에 국립박물관은 고고학적 발굴에서 얻어진 유물과 진귀한 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대학박물관은 4년제 대학의 자격요건을 갖추기¹⁶⁾ 위해서 설립된 경향이 짙었다. 이들 박물관은 지속적으로 유적 발굴을 통해서 자료의 수집과 연구에 치중했기에, 모두 ‘자료수집관리중심형 박물관’ 내지 ‘연구중심형 박물관’이라고 규정해도 무리가 아닐 줄 안다. 이제는 연구한 결과를 쉽게 표현하고 가시화하여 대중들에게 보이고 이해시키는 박물관, 즉 공공대중과 호흡하는 박물관으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대중이 시간·공간·내용에서 큰 부담 없이 보고, 듣고, 느끼고, 흥미롭게 참여하여 체험하며 이해하도록 박물관은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박물관도 당대의 문화시설이므로 당대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인식수

만 소장 표본류는 도합 40만 여점 정도로 그치고 있다”(안승락, 1997. 『자연사박물관과 생물학』, 『박물관학연구』 제2집(대전보건전문대학 박물관학연구소) 91쪽).

14) 영국의 경우 현대인들이 사용하던 ‘빨래집게’ 하나라도 박물관에 조건 없이 기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고, 박물관에서도 이러한 물품을 수증하는 데 대하여 이상한 느낌을 갖지 않고 좋은 일로서 받아들인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처럼 ‘사소한’ 현대적인 물건을 들고 박물관에 기증하려 간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웃을 것은 물론이고 박물관에서도 접수하려 들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15) 배영동·권기창, 1994. 『민속자료의 관리·이용을 위한 전산화』 『민속박물관의 세계』(은양민속박물관) 159쪽 참조.

16) 1970년에 개정된 대학설치기준령에 박물관에 관한 항목이 있다.

준에 맞추면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것이지, 박물관에 공공대중이 무조건적으로 맞추라고 하는 것은 권위주의적 발상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물질적 증거뿐만 아니라 추상적 대상과 주제도 대폭 수용하는 박물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박물관에서 물질적 자료(material artifacts)로서 존재하는 것에 한해서만 전시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다. 이런 인식이 잘못은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 박물관의 종별 다양성을 차단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첨단 과학기술에 의거한 전시기법은 이러한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특히 문화현상을 전시하는 박물관에서 인간의 언어와 사상과 행위 같은 것은 물질적 자료로써 그 실체를 직접적으로 구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박물관 전시에서는 배제되어 왔지만, 이제 간접적인 자료를 통하여 전시의 실현도를 높일 수 있다. 쇠퇴하는 인도 축제를 박물관에서 전시함으로써 그 문화를 보존할 수 있다는 Richard Kurin의 주장도¹⁷⁾ 역시 이러한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

여섯째, 전시주제 설정의 방식, 전시전달의 주요 내용, 전시전달 보조장치를 박물관 전시자료의 성격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하고 조정함으로써 기존 박물관과 다른 이미지의 박물관을 만들 수 있다. 창조적인 전시의 기술(방법)은 자료의 성질과 전시의 목적에 의하여 결정되는¹⁸⁾ 만큼 미래의 박물관은 전시방법의 다원화와 차별화를 통하여 반드시 실유물이 없어도 전시가 가능하고, 박물관활동이 역동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쪽으로 거대한 방향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IV. 전시주제 설정방식의 차별화

전시주제의 설정방식에는 전시자료의 수집과 주제설정간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라서 연역적 설정법과¹⁹⁾ 귀납적 설정법²⁰⁾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설정 방식은 박물관

17) Ivan Karp & Steven D. Lavine(eds), 1991. *Exhibiting Cultures*, Smithsonian Institution, 315-342쪽.

18) 倉田公裕, 1984(1979). 『博物館學』(東京堂出版社) 78쪽 참조.

19) 전시주제의 연역적 설정이란 확보된 자료의 영역이 어느 정도 구체화될 때, 전시주제를 먼저 설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제설정은 개관 준비기간이 충분할 때, 자료 수집이 용이할 때 가능한 방법이다. 구체적인 자료의 토대를 정확하게 고려하지 않아도 분명한 전시의도에 따라서 전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따라서 특색 있는 박물관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아무리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고 해도 막상 전시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원래의 의도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전시작업에 착수할 때에는 설정된 주제에 일정한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더구나 많은 시간 동안 전시의도와 주제에 맞는 자료의 수집에 전념해야 한다는 난점을 안게 된다. 하지만 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부터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연역적 방법으로 전시주제가 설정되어야 한다. 그랬을 때 어느 박물관보다 더 세련된 주제를 설정할 수 있으며, 전달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전시자료를 통하여 그에 내재된 전체적인 주제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교육 효과를 증진해야 하는 박물관에서 적절성이 높은 방법이다.

20) 귀납적 주제설정은 이미 많은 자료가 수집되어 있을 때, 수집된 자료의 성격과 하위영역에 의거하여 주제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의 주제설정은 개관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못할 때, 더 이상의

관의 다양성을 논하는 것과는 깊은 관계가 없다. 다만 박물관의 설립·전시목적이 먼저 수립되고 자료를 수집하느냐, 자료가 수집된 후 설립·전시목적에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박물관의 다종화와 전시의 다양화에 영향을 미친다. 다종의 박물관이 탄생하려면 박물관의 설립 목적과 전시의도가 다양하게 표방되어야 하며 이 경우 전시를 통하여 전달하려는 내용에도 다원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주제설정의 방식도 다양각색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한편으로 주제를 위계화하는 방법과 주제간의 유기성을 구현하는 방법도 있다. 위계화하는 데는 대중소 주제 또는 대소주제로 층위화하는 방식과 무층위화하는 방식이 있으며, 주제간의 유기성을 구현하는 데는 주제를 기승전결형으로 결합시키는 방식과 병렬형으로 설정하는 방식이 있다.

대체로 박물관 전시에서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주제설정 방식의 구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주제설정 방식 가운데 하나로 선택·한정된다기보다는 그 가운데 중심적인 주제는 하나의 방식으로 설정되고, 종속적인 주제는 반드시 중심적 주제설정 방식에 따르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중심적인 주제의 설정조차 일관성이 결여되었을 때, 이른바 '전시의 흐름'이라는 전체 맥락은 혼란해지게 마련이다.

1. 시간성 중심의 주제설정

전시자료를 시간의 변화라는 기준에 따라서 분류하고 이에 의거하여 전시주제를 설정하는 방법이다. 혹자는 이러한 주제설정에 의거한 전시를 時間軸展示라고 한다.²¹⁾ 역사박물관, 고고박물관, 미술사박물관, 자연사박물관 등에서는 모두 이러한 기준이 자료분류의 최우선적인 방법이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료 생성의 좌표를 설정하여 분류하고 이를 전시주제 설정에 고스란히 반영한다. 시간성을 중시하는 박물관은 모두 자료를 통한 역사성의 확립이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있다. 이른바 분류사의 맥락에서 자료를 파악하고자 하는 박물관에서는 모두 시간성을 중요한 전시주제 설정의 지표로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별 주제설정은

자료 수집이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을 때 적절한 방법이다. 이는 수집된 자료 속에서 전시 목적과 의도를 발견하고, 그 구도에 미흡한 자료를 약간 보완하는 선에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한다는 점에서 개관을 위하여 광범한 자료 수집을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을 가진다. 또한 귀납적 주제설정은 수집된 자료에 전시의도를 부여하므로 수집된 자료를 전시에 비교적 많이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수집된 자료의 영역이 특정한 방향으로 편중되어 있을 때, 무엇을 뚜렷하게 보여준다고보다는 있는 자료를 거시적인 체계 없이 보여주려 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게 될 우려가 높다. 이러한 주제설정은 수집된 자료가 대부분 진귀한 것일 때는 거의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즉, 엘리티즘적 성향이 짙은 박물관에서는 대부분 이러한 방식을 취하게 된다. 그러나 그 방법이 하나의 거시적인 흐름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효과를 증진한다기보다는 진귀품을 통하여 무한한 감동과 정서적 만족을 기하는 박물관에 적합한 방식이다.

21) 新井重三·佐木朝登 編, 1981. 『博物館學講座7 -展示と展示法-』(雄山閣出版) 56쪽.

거대한 시간 흐름의 좌표 속에서 개개 전시자료를 이해함은 물론이고 증주제, 소주제까지도 시간성이라는 중심적 개념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전달하는 데 적절성이 담보된다.

고고박물관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구석기시대-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철기시대 같은 주제설정, 역사박물관에서 설정한 선사시대-역사시대(그 하위에 시대순별 ○○국가시대로 설정)는 시간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전시자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주제설정의 방식이다. 또한 자연사박물관에서 은하계-태양계-지구 등의 생성과 변화과정은 본질적으로 시간성에 입각한 주제 설정으로써 전시될 때 전달효과를 증진할 수 있다.

2. 공간성 중심의 주제설정

수집된 전시자료를 공간적 지표에 따라서 분류하고 이에 의거하여 전시주제를 설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주제설정 방식에 의거한 전시를 어떤 사람은 空間軸展示라고 한다.²²⁾ 자연사박물관, 생태박물관(ecomuseum) 등에서는 자료가 소속된 원래의 공간성이 자료 해석의 중요한 측면이다. 구미에서 말하는 '지리적 분포전시'나 '지층 구조전시', 그리고 생태박물관 또는 생태전시에서 창안된 '原地그룹(habitat group)전시'는²³⁾ 모두 공간성에 따른 전시방법이다. 모든 문화현상과 자연현상은 시간의 축과 공간의 축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대전제를 인식한다면, 공간성을 중심에 둔 주제설정은 실로 불변하는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특히 모든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어떠한 자연적·인문지리적 환경과 조건 속에서 태동되었기 때문에, 공간적 좌표에 따라서 그러한 대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를 설정하는 것은 평범하면서도 사실에 도달하게 해주는 방법의 하나이다.

물론 자연사자료나 생태자료가 아니라 하더라도 고고자료, 민속자료, 역사자료에 있어서도 공간성의 변수는 원래의 상황과 모습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요소임에는 분명하지만, 자연사자료나 생태자료에 비해서는 그 중요도가 다소 낮다. 그럼에도 고고자료나 역사자료의 전시를 위한 소주제의 설정에서는 공간성을 고려하게 된다.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반을 풍미한 전파주의(diffusionism) 이론은 문화현상의 공간적인 확산과정을 중시하면서 이를 토대로 문화권을 설정하고 문화의 속성을 이해하려고 한 것이거니와, 그 결실을 인류학박물관 또는 민족학박물관에서 수용하여 전시할 때 공간성에 따른 주제설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3. 종 계통 중심의 주제설정

전시자료를 발생 계통에 따라서 분류하고 이에 의하여 전시주제를 설정하는 방법이다. 특히 자연사박물관에서 생물자료를 전시할 때에는 계통분류가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과제

22) 新井重三·佐佐木朝登 編, 『앞책』 57쪽.

23) 新井重三·佐佐木朝登 編, 『앞책』 60쪽.

이며, 따라서 발생 계통에 의거한 분류와 함께 전시주제의 설정은 필연적이다. 종의 계통 설명에는 앞서 논의한 시간성이 일정하게 매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성은 계통형성의 과정에서 종에 따라서 상이하게 작용할 뿐이므로, 생물의 경우 동일한 길이의 시간성에 기 준하여 전시주제를 설정하는 것은 때로 그 가치가 낮을 수도 있다.

자연사박물관에서 생물의 전시는 종의 다양성과 함께 진화 또는 분지의 과정을 이해시키 야 하는 기본전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종의 계통에 따라서 주제를 설정하는 방법의 적실성 은 무척이나 크다. 분류학 전공자들이 연구인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자연사박물관의 주된 연구영역은 동식물의 분류학이었다.²⁴⁾ 분류학이야말로 포유류, 파충류, 조류, 어류, 양서류, 갑각류, 고등식물류, 규조류, 녹조류 등과 같은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을 파악하고 그것을 정밀하게 분류·연구하는 것임을 생각할 때, 생물 종을 계통화하는 전시주제의 설정은 자연 사박물관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확보하면서 그 가치를 드러내게 된다.

4. 민족별 문화유형 중심의 주제설정

수집된 자료를 민족단위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서 전시주제를 설정하는 방법이다. 민족학이 나 인류학에서는 부족이나 민족마다 상이한 문화를 가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의 독립 된 사회집단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들 부족이나 민족이 가진 사회와 문화가 남긴 자료는 당 연히 민족단위의 문화유형(patterns of culture)을 중심으로 전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인류학 박물관, 민족학박물관에서는 이와 같은 전시주제 설정을 적절하다고 여겨 기본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보다 더 광범하게 국가(다민족 국가일 때), 문화권 등으로까 지 범위를 확대하여 전시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국가 또는 문화권 단위의 전시는 통합된 전체(integrated whole)로서 문화의 유형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를 지니므로 민족단위로 전시한다.

사실 인류학박물관 또는 민족학박물관에서 취하는 민족단위의 전시는 그것이 그 민족과 민족문화를 보여주는 최상의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전시면적의 제약 때문에 민족 단위의 문화유형을 일반화·특화하여 전시주제를 설정하고 있다. 이 정도로 세분한다고 하 는 것도 힘겨운 일이므로, 더 넓게는 대륙단위로 대별하고 그 속에서 특화된 민족문화가 전 시되기도 한다. 예컨대, 일본의 국립민족학박물관에서는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 카, 서아시아, 음악, 언어, 동남아시아, 중앙·북아시아, 동아시아(산하에는 조선반도의 문화, 중국지역의 문화, 아이누의 문화, 일본의 문화로 구분된다)의 구획으로 전시실을 구분하 여²⁵⁾ 거시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전시하고 있다. 말하자면 통문화적(cross-cultural) 이해 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24) 안승락, 「앞글」 94쪽 참조.

25) 국립민족학박물관 편집, 1989. 『국립민족학박물관 전시안내』

5. 예술장르 중심의 주제설정

전시자료를 예술적 장르에 따라서 분류하고 이에 의거하여 전시주제를 설정하는 방법이다. 미술사박물관이나 미술박물관에서는 회화, 조각, 판화, 공예, 서예 등과 같은 예술장르에 따라서 자료를 분류하고 이에 의거하여 주제를 설정하고 있다. 예술장르별로 미적 표현의 특성과 기법이 달라진다는 점 때문에 미술품을 전시하는 박물관에서 중시하는 기준이 되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박물관의 오랜 전통에는 미적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인식이 무척이나 강하게 흐르고 있다. 그래서 전시자체를 하나의 예술형태(art form)로서 인식하기도 한다.²⁶⁾ 이것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박물관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왕이면 더 완형인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보기 좋은 것이 전시자료로서 선정된다. 그러면서도 전시자료 선정을 위한 대상의 범위는 전시의 규모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겠지만, 예술장르별 영역을 기본적 범주로 하고 그 예하에 다시 세분된 범주를 설정하게 된다. 그러한 범주내에서 미학적 가치라는 기준에 의하여 전시자료가 선정되고, 전시주제는 장르를 고려하여 설정된다. 그러나 특정한 시대나 지역의 미술품을 전시자료로 삼는 특별전의 경우에는 장르별 설정이 반드시 가장 우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

6. 생활 의미 중심의 주제설정

어떤 사회·문화현상에 내재하는 의미에 따라서 전시자료를 분류하고 주제를 설정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의미란 인간이 대상에 부여해놓은 상징행위 또는 대상에 대한 인식론적 방식을 말한다. 비록 민족 또는 집단에 따라서 특정 대상에 대한 의미는 차이를 보인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 사회 내에서 그 의미에 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상에 대한 의미가 사람들 간에 무리 없이 수용되고 전달된다면, 그들은 하나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음이다.

민속박물관에서는 한 민족을 구성하고 있는 ‘공분모로서의 사람들’(common denominator people)²⁷⁾ 생활방식에 내재하는 의미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전시주제를 설정하고, 인류학박물관이나 민족학박물관에서는 민족단위의 주제분류 속에서 다시 의미중심의 주제를 설정하고 있다. 민속학은 한 민족의 문화맥락 속에서 의미를 발견해내고, 인류학은 민족마다의 또는 전인류의 문화적 다양성과 상이성을 해명하려는 본원적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 집단과 사회가 만들어내고 소통하는 의미를 어떻게 주제설정으로 연결시킬 것인가는 자료에 대한 해석의 방향과 닿아 있다.

26) Michael Belcher, 1991. *Exhibitions in Museums*,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41쪽

27) George E. Marcus & Dick Cushman, 1982. "Ethnographies as Texts",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 11, 32쪽 참조.

7. 과학적 원리 중심의 주제설정

과학기술박물관에서는 대체로 인간이 만든 지혜의 산물인 인공물에 내재된 자연과학적 원리와 규칙성에 따라서 전시주제를 설정한다. 이 박물관에서는 자연과학적 원리와 법칙의 전달이 중요하므로, 기계·산업·약품 등에 담긴 원리와 법칙이 무엇인지에 따라 전시주제를 설정함으로써 대상에 내재하는 법칙성을 쉽게 이해하도록 한다.

자연물과 물질세계, 인공물에 대한 물리적·화학적·의학적·공학적 법칙을 찾아내고, 이 법칙을 전달하는 것은 결코 용이한 작업이 아니다. 법칙과 원리가 하나의 전시자료에 중첩되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자연과학과 이공학 분야의 분과학문에서는 새로운 발견과 발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전시주제 설정에서 수용하려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비록 새로운 것이 낡은 것을 구축한다고 할지라도, 새로움 속에는 낡은 것이 일정한 기반을 이루고 있다는 점은 고려되어야 한다. 새로운 법칙도 불변하는 낡은 법칙과 함께 수용될 수 있으며, 수정되고 파기된 낡은 법칙은 새 법칙의 창출에 어떤 기여를 하였는지 소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구의 성과와 법칙을 적절하게 편성하고 함께 전달할 수 있는 전시주제의 설정은 인류의 보편역사 속에서 인류가 발전시켜온 과학을 이해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V. 전시전달의 주요내용 차별화

박물관 전시는 의사소통의 매체(medium of communication)로서 인식된다.²⁸⁾ 전시자는 전시행위를 통해 전시자료에 담긴 다양한 정보를 드러내고 관람자는 이 전시자료를 관람함으로써, 전시자와 관람자 사이에 생각·정보·느낌·가치의 의사소통이²⁹⁾ 이루어진다. 무엇을 전달하느냐 하는 것은 그 박물관의 설립목적과 전시의도에 따라서 가변적인 성질을 갖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전시자료의 본질이 무엇이며 어떤 속성을 지닌 것인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사실 동일한 전시자료가 한 박물관에서 서로 다른 진열장에서 다른 주제에 편성되어 전시되는 현상도 전시대상은 동일하되, 전달의 내용을 다르게 설정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박물관 전시에서 전시자료가 담고 있는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곧 전시자료의 본질(the nature of the objects)을 보다 명료하게 드러내고, 전시효과를 향상시키는 방법과 연관되어 있다. 박물관 전시기법(display techniques)이 일정하게

28) Michael Belcher, 『앞책』, 37-43쪽.

29) Kathleen McLean, 1993. *Planning for People in Museum Exhibitions*, Association of Science-Technology Centers, 17쪽.

는 전시자료의 본질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여기서는 전시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전달할 것인지를 몇 유형으로 나누어서 검토하고자 한다.

1. 자료의 정확한 원상과 역사성 전달

어떠한 박물관자료이든지 1차 자료인 실물자료로서 분명한 역사성을 담보하고 있으면 최상이다. 그럼에도 실제 박물관에서 전시되는 자료는 실물자료뿐만 아니라 2차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지질학자·생물학자·동물학자·식물학자·유전공학자 등이 연구하고자 하는 자연사자료는 어떤 분야의 박물관자료보다 정확한 원상과 역사성이 생명이라고 하겠다. 생태학적 전시(ecological exhibitions)도³⁰⁾ 동식물이 어떻게 자연계에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존속하고 있는지를 보다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의도에서 출발되었다. 고고학자도 시대를 소급하여 역사를 복원하고 사회와 문화를 해석하려고 하므로 고고자료에 있어서도 정확한 원상과 역사성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이 때 정확한 원상과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의 물리화학적 속성과 명확한 시대성이라고 이해해도 좋다. 그 중요성은 옛 시대의 자료로서 희소성과 진귀성을 지니고 있을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자연사박물관이나 고고박물관에서는 실물자료를 전시하였을 때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가장 정확하게 전달된다. 자연히 고고박물관에서는 자료의 형식과 편년을 중시하게 되며, 자연사박물관에서는 종의 분류와 계통의 정립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사정 때문에 전시방법을 다양하게 발전시키는 데 제약을 안게 되는 점도 나타나게 된다.

2. 자료를 통한 감동과 아름다움의 전달

평면미술이든지 입체미술이든지 간에 미술품은 인간의 미적 창조활동의 결과물이다. 회화·서예·조각·공예 같은 분야뿐만 아니라 고고자료와 역사자료, 민속자료에서도 미적인 요소를 간직한 자료는 다량으로 혼효되어 있다. 따라서 미적 창조활동이 두드러지는 어떠한 문화유산도 미술품 즉 미술자료인 것이다. 이러한 미술자료의 전시에서는 무엇보다 아름다움과 찬란함을 접하는 경탄과 신선한 감동을 우선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사실상 박물관의 발달과정에서 볼 때, 진한 감동과 경탄을 자아내는 미술품을 수집하여 전시하는 문화공간은 엘리티즘적 박물관을 형성하였다는 비판을 받지만, 이와 같이 진귀한 미술품을 전시하는 박물관이 초기 박물관의 모습이었다. 그리하여 박물관 전시에서 미학적

30) V. H. Bedekar, 1978. *So You Want Good Museum Exhibitions*, M.S. Univ. of Baroda, 136-138쪽 참조.

전시(aesthetic display, aesthetic presentation)라고³¹⁾ 하는 주요한 전시유형을 이루었으며, 이것은 무엇보다 전시자료가 함유하고 있는 아름다움을 전달하여 감동을 자아내고 아울러 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방식이었다.

박물관 전시에서 강조되는 흡인력 또는 매력(attraction)은 어쩌면 아름다운 전시자료를 보고 느끼는 감동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박물관의 전시자료가 이와 같은 아름다움의 향기를 발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전시자료의 영역과 속성에 따라서 주요 전달내용은 다르게 마련되어야 한다.

3. 자료를 통한 생활양식과 의미의 전달

고고자료와 달리 사람들이 최근까지 생활하면서 남긴 자료의 경우 그에 담긴 생활양식이 현지조사를 통하여 일정하게 파악될 수 있다. 물론 생활양식의 전모를 나타내지 않고 제한된 물질적 자료라고 해도 물질적 자료 이외의 생활영역을 통해서 보완될 수 있다. 이른바 민속자료나 인류학적 자료는 그 시대성에 있어서 고고자료나 역사자료에 비하여 상당히 뒤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한 자료를 사용한 사람들의 생활관습이 대부분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자료에 내재된 삶의 방식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전시에 있어서도 당연히 실물자료의 물리화학적 속성과 역사성보다는 전체 문화 속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용도, 생활양식의 전달에 치중하게 마련이다. 그리하여 민속박물관과 인류학박물관이 같은 인문사회계박물관에 속하는 고고박물관에 비하여 자료의 형식과 역사성보다는 문화적 의미와 다양성의 전달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이루게 된다. 모든 박물관 전시는 불가피하게 전시자 자신의 문화적 가정과 정보를 묘사한다고³²⁾ 할지라도, 전시자가 추구하는 것은 전시자료를 형성·전승한 사람들의 문화맥락(cultural context) 속에서 전시자료를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명성을 누려온 미학적 전시의 궤도를 벗어나 문화맥락적 전시를 성립시키려는 방향성이다.

4. 자료를 통한 과학적 원리와 법칙의 전달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여 또는 자연환경을 변경·조정하여 생활에 유리한 물건을 만들면서부터 과학기술은 계속 발달하였다. 인간이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내는 과학기술의 산물은 곧 과학기술자료이며, 이런 자료를 중점적으로 전시하는 박물관에서는 자료에 내재된 과학기술적 원리와 법칙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31) V. H. Bedekar, 『앞책』, 9-10쪽 참조.

32) Steven D. Lavine & Ivan Karp, 1991. *Exhibiting Cultures*, Smithsonian Institution, 1쪽.

과학기술적 원리도 과학사의 견지에서 보면 민족 차원의 내재적(emic) 방식과 범세계 차원의 외재적(etic) 방식으로 구별될 수 있다. 내재적 방식은 그 사회의 독특한 용어로 표현되고 독특한 기술에 의해서 정립된 것이며, 외재적 방식은 그 사회 밖에서까지도 일반화된 것이다. 따라서 내재적 방식의 원리는 한 나라의 과학기술사를 이해시키려는 박물관에서 더 중요한 전달내용이 될 것이며, 외재적 방식의 원리는 세계 통용의 보편적 과학 원리와 법칙을 이해시키는 이공학계의 과학기술박물관에서 더 큰 전달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 과학기술박물관에서는 복잡한 기계나 장비, 시설 등에 관류하고 있는 어려운 과학적 원리나 법칙을 관람자에게 용이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간결하고 용이한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관람자의 머리는 더욱 혼란스러워진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박물관에서는 체험전시, 동력전시 등의 방법을 다양하게 구현하여 관람자가 오감으로 과학적 기초원리를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VI. 전시전달 방식의 다양화

전시자료가 담고 있는 정보를 박물관 전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모든 박물관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첫째, 전시자료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전시전달의 방식은 유동적이다. 전시자료가 담고 있는 정보는 비록 객관적이라고 하더라도, 전시자료의 해석 정도와 방법에 따라서 정보의 양과 질은 편차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동일한 전시자료라고 할지라도 정보의 발현방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전시전달의 방식은 사뭇 달라지게 마련이다. 전시자료를 고정시켜 전시함으로써 정보를 발현할 것인가, 가동성 있게 전시하여 정보를 발현할 것인가에 따라서 전시전달의 효과가 달라진다.

셋째, 동종의 전시자료라고 할지라도 다양성과 대표성을 어떻게 수용하고 확보하느냐의 문제도 전시전달의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다양성 속에서 대표성을 파악하고 설정하는 것은 전시기획자의 인식론적 판단에 근거하여 성립된다. 그러나 이렇게 선정된 전시자료가 반드시 그 영역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므로 다양한 전시자료를 함께 나열 또는 비교하여 전시하기도 한다.

넷째, 박물관에서 전시자료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종합하느냐에 따라서 전달의 방식과 효과를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다. 전시자료의 분류방법은 기본적으로 그 박물관의 설립목적과 전시방향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며, 대체로 특정 분과학문의 영역분류와 연구대상 분류방식에 따르기 쉽다. 하지만 박물관에서는 전시자료를 분류하여 전시하는 데 그치는 것

이 아니라 다시 종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경우 분과학문의 벽을 뛰어넘는 종합을 할 수도 있다.

1. 제시형 전시와 설명형 전시

제시형 전시는 지적인 이해보다는 감상을 통하여 감성을 연마하고 정서를 함양할 목적으로³³⁾ 전시자료에 대하여 특별한 해석을 하지 않고 있는 대로 보여주는 전시를 말한다. 반면 설명형 전시는 관람자의 지적인 욕구에 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³⁴⁾ 일정하게 자료에 대한 해석과 설명을 하여 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시형 전시는 미술박물관 또는 미술사박물관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해석하기가 곤란한 고고자료를 전시하는 데도 적용된다. 미술박물관에서 제시형 전시를 하는 것은 미술품에 대한 심미적인 해석을 논평자 또는 전시자의 판단으로 고정시키기보다는 관람자의 미술품에 대한 감상의 폭과 깊이에 신축성을 부여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박물관 전시를 하나의 poetics로 간주하기도³⁵⁾ 한다.

설명형 전시는 전시자료의 이면에 어떤 객관적이며 풍부한 사실을 담고 있다고 판단하여, 그것을 해명하여 관람자에게 전달하려는 것이다. 즉, 전시자료를 통하여 역사적 사실, 문화현상의 의미, 자연과학적 원리 등을 해석하여 전달하는 방식이다. 설명형 전시는 전시자의 의도와 관점이 강하게 표현된다는 점에서는 대상에 대한 이해에 어느 정도의 편견이 깔리게 된다. 전시자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문화화(enculturation) 과정을 거쳤고, 자신의 학문적 오리엔테이션에 따라서 나름의 관점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물관 전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가급적 특수한 방식의 해석과 지향성을 억제하고 보편성을 최대한 발현하는 설명을 요구한다.

2. 정태적 전시와 동태적 전시

정태적 전시는 오랜 기간 동안 박물관 전시에서 주류를 형성하여 왔다. 실물 전시자료뿐만 아니라 보조 전시자료 중 어느 것도 형상적으로 고정되게 전시하는 방법이다. 이는 전시작업이 용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변화감이 없어서 관람객들에게 흥미의 유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동태적 전시가 부각되었다. 新井重三과 佐佐木朝登 등이 말하는 영상전시, 實演전시, 동력전시, 사육재배전시, 체험전시 등은 동

33) 新井重三·佐佐木朝登 編, 『앞책』, 35쪽

34) 新井重三·佐佐木朝登 編, 『앞책』, 36쪽.

35) Ivan Karp & Steven D. Lavine(eds), 『앞책』.

태적 전시에 포함된다.³⁶⁾

생명이 있는 동식물이 살아있는 모습대로 움직이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면 가장 동태적인 전시가 될 것이다. 아마도 동물원 같은 것을 박물관으로 인식하는 데는 동태적인 전시에 눈을 뜨게 된 이후라고 생각된다. 자연과학적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전시, 연행예술(performance art)의 전시에는 특히 동태적 전시가 주효하다. 정확히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고박물관에서도 선사인이 석기를 제작하는 모습, 사냥하는 모습을 동태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3. 개체전시와 개체비교전시

개체전시는 동일한 종류의 자료를 1점만 전시하는 것이며, 개체비교전시는 동일한 종류의 자료를 2점 이상 전시하여 비교를 통하여 동종 전시자료의 다양성과 변이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가운데 어떤 것이 좋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며, 박물관의 전시면적이나 전시의도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개체전시는 1점 자료에 대한 다각적이고 풍부한 관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넉넉한 여백을 주어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 적합하다. 그러므로 개체전시는 미술사박물관 같은 곳에서 진귀한 자료를 충분히 감상하도록 하기 위하여 널리 사용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개체전시는 전시자료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본지식을 갖춘 사람에게는 전달력이 높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전달력이 떨어지며 단조로운 감을 주기 쉽다. 그럼에도 희귀한 자료 즉, 학술적·예술적·역사적 가치가 돋보이는 전시자료의 경우에는 개체전시를 해야만 전시의도가 살아날 수 있다.

개체비교전시는 동종의 자료를 형식·지역·시대 등에 따라서 어떤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을 때 유리하다. 개체비교전시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답답한 감을 줄 수 있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성이 인정될 때, 자연사박물관에서 종의 다양성을 전시할 때, 특별전시처럼 하나의 주제를 깊이 천착할 때 적합한 방법이다. 전시자료 1점이 가진 특성보다는 동종의 전시자료가 갖는 총체성에 접근하는 것이므로, 비교를 통한 전시자료의 상대적 이해를 심화하는 데 기여한다.

4. 분류전시와 종합전시

분류전시는 전시자가 설정한 기준 또는 학문상 분류체계에 의거하여 자료를 분류·정리하여 배열하는 전시를 말한다. 종합전시는 추상화된 개념에 포괄될 수 있는 전시자료를 수

36) 新井重三·佐佐木朝登 編, 『앞책』, 52-54쪽 참조.

집하여 그 개념이 가리키는 영역의 총체성을 구명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방식이다.

분류전시는 지금까지 많은 박물관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온 전시방법으로서, 그 분류체계는 어떤 대상을 연구하는 개별 분과학문에서 정립된 것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종합전시는 분과학문 차원이 아니라 여러 학문 분야에서 다루는 대상을 종합하여 공통된 하나의 추상적 개념을 도출하고 이에 관한 내용을 다영역에 걸쳐 다각도로 집성하여 해명하는 방식의 전시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종합전시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실현이 가능하며, 오히려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함께 융합하는 주제의 전시에 적용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生老病死’라는 추상적 개념의 주제로 전시한다고 하자. 생로병사에는 인간·조류·짐승·곤충·식물 등등 각이한 생명체의 다양한 형태와 방식이 있다. 이러한 생로병사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를 해석하여 전시하려면, 의학·약학·동물학·식물학·곤충학·생물학·병리학·종교학·심리학·사회학·민속학·인류학 등에 이르기까지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이 함께 참여하는 학제적 연구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로써 하나의 주제에 관한 종합적 이해를 꾀할 수 있다.

VII. 전시보조자료의 다양성과 적용

전시자료를 전시·연출할 때, 전시자료만을 진열장 또는 전시대 위에 펼치는 것이 아니다. 전시자료 그 자체의 진열은 말할 것도 없으며, 아울러 전시자료에 관하여 해석된 정보를 어떠한 물질적 수단을 동원하여 가시적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전시자료 자체 이외에, 전시자료를 이해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보조적으로 동원되는 매체를 전시보조자료라고 한다. 전시보조자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다든지, 전시의 흐름에 맞지 않는 전시보조자료를 동원한다든지, 전시보조자료의 사용에 지나치게 인색한 것은 박물관전시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 마디로 전시보조자료는 전시자료 자체의 전시가 가진 정보전달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채택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박물관마다 전시의 목적과 전시자료의 내용과 속성이 각기 차별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전시보조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정보전달의 효과를 증진하고, 전시의 단조로움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나친 전시보조자료의 사용은 박물관 전시의 본말을 전도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전시보조자료에 대한 맹신은 금물이다. 어디까지나 박물관 전시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되는 자료는 전시자료이지 전시보조자료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시보조자료는 전시자료의 주변부를 장식하는 위치에 놓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떤 공간 속에서 전개되는 전시는 공간의 변형을 통하여 진행되거나, 공간의 조직화·조화·형태·균형·크기·비율·리듬·강조·분위기·흡인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³⁷⁾ 따라서 전시보조자료가 과연 전시공간의 변형에 어떠한 긍정적·부정적 작용을 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1. 모형과 복제품

모형은 전시자료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추가되는 것으로서³⁸⁾, 형태·질감·색상 등의 측면에서 1차 자료인 실물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든다. 일반적으로 재질과 크기에 있어서는 실물과 다르다. 경우에 따라서는 크기를 실물에 비하여 계획적으로 가감하여 만든다. 모형은 전체적인 모습과 느낌을 실물과 같게 한 까닭에 전체 내용을 한눈에 조망하려는 방식의 전시에서 효용성이 인정되어,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전시의 의도와 목적으로 보아 자료가 가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경우 실물자료가 중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재질·색상·형태·크기·제작기법 등의 제시와 전달이 더 우선적이므로, 모형은 자료의 정확한 원상을 보여주려는 전시, 아름다움과 감동을 전달하려는 전시에서는 그 한계가 자명해진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정확한 원상을 전달하려는 박물관에서도 실물 크기 그대로 전시할 수 없는 경우, 유기물질의 생물 표본처럼 오랜 세월동안 보관 전시하는 데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모형전시를 통하여 원래의 모습을 실물자료에 가깝게 전달할 수 있다.

복제품은 재질·질감·색상·중량·크기 등에 걸쳐서 즉 모든 측면에서 실물과 최대한 동일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량 같은 데서 특히 실물과 차이가 발생하는데 대개 이 경우에는 중량이 전시에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주 오래된 무기물질의 실물자료로서 회소성이 있는 자료는 복제품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복제품도 자료의 정확한 원상과 역사성, 감동과 아름다움을 전달하려는 전시에서는 그 효용에 큰 의문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생활양식과 의미를 전달하려는 전시, 접촉과 체험을 통하여 과학적 원리를 전달하려는 전시에서는 복제품의 활용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2. 도해자료와 사진자료

도해자료는 실물자료에 관한 사실과 원리 등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식·시각디자인·문자기록 등을 적절히 융합한 평면형 전달 매체로서 제작이³⁹⁾ 용이하고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자료의 정확한 원상과 역사성을 전달하는 경우, 자료를 통한 과학적 원

37) Kathleen McLean, 『앞책』, 115-124쪽 참조.

38) 村上義彦, 1992. 『博物館の歴史展示の實際』(雄山閣) 43쪽.

39) 도해자료의 패널은 Plywood, Hard Board, Chip Board, Upson Board, Homosote and Cellotex, Laminates, Foamcore, Cardboard, Cloth and Vinyls 등으로 제작한다(Lothar P. Witteborg, 1991. *Good Show!: A Practical Guide for Temporary Exhibitions*, Smithsonian Institution, 146-151쪽 참조).

리와 법칙을 전달하는 경우에 특히 도해자료는 그 적절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인정된다. 또한 설명형 전시, 개체비교전시에서도 도해자료는 실물자료가 담고 있는 내용을 좀더 풍부하게 설명함으로써 전시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사진자료는 대상을 시각적으로 설명하는 고정된 평면자료로서 풍부한 사실성을 지니고 있어서 박물관 전시에서 활용가치가 높다. 그러나 사진은 특정 시대의 특정한 사례에 치중되는 자료이며, 원본 사진은 사진촬영이 대중화된 이후의 것에 한정되어 있다. 특히 옛 모습을 사실적으로 담고 있는 사진자료는 생활모습과 풍속 등을 시각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생활양식과 의미를 전달하는 전시에서는 효용가치가 높지만, 그러한 사진자료는 카메라의 발명과 보급 이후의 것에 한정되어 있어서 그 역사가 짧다는 한계를 지닌다.

전시를 위하여 새로이 촬영한 사진자료는 진귀한 자료에 대한 개체전시에서, 여러 측면이나 보이지 않은 측면을 이해시키는 데, 그리고 유적 발굴 당시의 장면을 통하여 원상과 현장성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 주요한 전시보조자료이다. 아울러 사진자료는 제시형 전시에서보다는 설명형 전시에서 활용범위가 넓고, 자연히 그러한 전달방식을 추구하는 전시에서는 적절하게 활용해도 어색하지 않은 것이다.

3. 영상자료와 음향자료

모든 전시자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코 실물자료이지만, 전시보조자료 가운데서 시각적인 효과를 가장 많이 증폭할 수 있는 것이 영상자료이다. 영상자료는 설명형 전시, 동태적 전시, 종합전시에서 그리고 과학적 원리와 법칙의 전달에서 그 효용이 더욱 높다. 그러나 영상자료는 기술상의 한계와 특성 때문에 모든 현상을 담아낼 수 없으며, 또 일정한 변형과 왜곡이 발생한다. 그래서 역사성이 깊은 자료일 때는, 사실적인 영상자료보다는 육안으로 보아 거슬리지 않으면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변형·변조한 영상자료를 제작하여 전시한다. 또한 실물자료를 추적·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추상화된 개념을 전시주제로 설정할 경우에도 영상자료를 제작하여 전시할 수 있다. 영상자료는 이처럼 신축적인 특성을 지녔으나 일반적으로 음향자료와 함께 음향영상장치(audio-visual devices)로 복합구성을 이루게 되므로 작동하면 전시실이 소란스러워진다는 한계가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음향자료는 음성을 삽입함으로써 전시주제의 사실성과 총체성에 근접시키기 위하여 활용된다. 그 속성상 음향자료는 음성의 복원이 용이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동물을 2차 자료로 전시하는 경우에 동물의 음성을 음향자료로써 전시하는 것은 충분한 설득력과 전달력을 가질 수 있다. 사람들의 언어와 이야기, 의례과정의 상징적 언술을 음향자료로써 전시하면 전시자료가 가진 정태적인 한계를 동태적으로 역동화하고 사실성을 높일 수 있다. 과학적 원

리와 법칙을 전달하는 전시에서도 음향효과가 필요할 때 마찬가지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음향자료의 가동시에도 전시실의 소란 문제는 고려되어야 하는 바, 오늘날에는 '개인형 오디오 안내'(personal audio-guides)가 관람자에게 매우 대중화되어 가며 이것은 전시에 있어서 영상자료를 보완하는 데도 적절하다.⁴⁰⁾

VIII. 맺음말

박물관은 사람들이 남긴 물질적 증거인 문화유산과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의 물질적 증거인 자연유산을 수집·보존·전시·연구하여 대중들에게 교육하는 종합적인 기능체이다. 따라서 박물관의 종류는 크게 문화유산을 다루는 박물관과 자연유산을 다루는 박물관으로 대별된다.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박물관으로는 고고박물관, 미술사박물관, 역사박물관, 인류학(민족학)박물관, 민속박물관, 과학기술박물관 등이 있으며, 자연유산을 대상으로 성립되는 박물관에는 자연(자연사)박물관, 생태박물관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자연유산을 다루는 박물관은 수량뿐만 아니라 영향력 면에서도 문화유산을 다루는 박물관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세이다. 또한 문화유산을 종합적인 방법으로 관리하는 박물관은 그 성격상 고고미술사박물관이 가장 전형적이며, 영향력 있는 박물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박물관은 그 종류와 전시자료의 영역면에서 일정한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박물관의 성립과 발달 과정에서 작용한 식민주의적 문화침탈, 민족문화의 정통성 확립, 엘리티즘적 문화향수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인 배경과 맞물려 나타난 것이다.

고고미술사박물관은 대체로 오래되고 귀중한 문화유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존재 의의와 활동가치가 충분히 인정되고 원형적인 것이었다. 특히 이런 박물관에 소장된 자료는 희소성·진귀성·역사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따라서 전시과정에서 자료 자체의 물리적 속성을 정확히 전달하고, 이를 통하여 역사의 정립과 아울러 무한한 감동과 정서적 만족감을 제공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박물관이 반드시 이토록 진귀한 자료를 중요시하고, 감동과 정서적 만족을 가져다주는 활동에 전력할 수는 없다. 진귀하고 깊은 역사성을 담보하는 자료는 그토록 많지 않으며, 박물관자료의 생명은 희소성과 진귀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한국에도 다종다양한 박물관이 설립되어야 하는 바, 특히 자연사박물관, 인류학(민족학)박물관, 산업기술박물관, 의학박물관 등을 위시하여 특정 주제를 다루는 여러 가지 전문박물관이 속속 설립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들 박물관의 전시는 이때까지 주류를

40) Michael Belcher, 『앞책』, 144쪽.

형성하여왔던 전형적·고전적인 박물관의 전시방법에 얽매어서는 곤란하다. 즉, 박물관의 종류, 전시목적과 의도, 전시자료의 속성에 따라서 전시주제 설정법, 전시전달의 주요 내용, 전시전달 방식, 전시 보조자료 등에 차별성을 확보하고 적용비율의 다양화를 꾀해야 한다.

전시주제 설정에 있어서는 시간성 중심법, 공간성 중심법, 종 계통 중심법, 민족별 문화유형 중심법, 예술장르 중심법, 생활 의미 중심법 등으로 개개 박물관의 차별화가 가능하다. 전시전달의 주요 내용은 박물관의 종류에 따라서 자료의 정확한 원상과 역사성, 감동과 아름다움, 생활양식과 의미, 과학적 원리와 법칙 등으로 그 지향점을 달리 나타내게 된다. 전시전달 방식에 있어서는 제시형·설명형·정태형·동태형·개체형·개체비교형·분류형·종합형 등을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모형과 복제품, 도해자료와 사진자료, 영상자료와 음향자료 등과 같은 전시보조자료를 전시자료의 속성과 전시주제에 적합하게 활용함으로써 전시의 리듬과 균형, 강조와 변화를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방식과 제 형태 가운데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개별 박물관이 지향하는 성격과 개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이는 전시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개개 박물관의 상대적 차별화와 특성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이 되며, 한국 박물관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